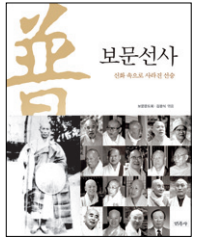


봉암결사 이끈 보문선사 생애 조명

보문선사-신화속으로 사라진 선승

보문선사, 김광식 엮음 | 민족사 펴냄 | 2만8천원



책은 구전으로만 회자되던 보문 스님의 이야기다. 알려지지 않았던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지인 22명의 회고를 모아 엮었다. 신화 속으로 사라진 선사가 있다. 우리나라 근현대불교에서 잊혀진 큰스님이다. 선방의 스님들 사이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보문 선사다. 스님은 성철 스님, 항곡 스님 등과 함께 봉암사결사를 함께 이끌었다. 일화를 통해 그려지는 스님의 모습은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다. 보문 스님을 회고하는 스님들 중 여러 큰 스님들은 "보문 스님이 오래 사셨다면 중정도 하셨을 것이고, 한국불교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탁발하여 수행자를 직접 일구고, 최소한의 돈 외에는 모두 거리의 불우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탁발도 시장터의 길거리에서만 했는데, 보문 스님이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발우를 들고 걸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보시를 하고 예를 갖췄다고 한다. 발우에 담긴 지폐들이 바람에 날려 떨어져도 절대 줍거나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거지들이 스님의 주위를 따라다니며 떨어진 지폐를 주어들었다고 한다. 이렇듯 스님은 철저하게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저자는 "보문 선사는 현대불교사에서 잊혀진 스님이었다. 선사가 이 땅을 떠난 지 어언 55년이 되었다. 지난 세월 동안, 선사의 출가 본사였던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스님을 찾지 않았다. 아니 찾지 못하였다. 비석을 세우거나, 책자를 내는 등 일체의 선양작업을 하지 말라는 엄한 당부의 유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도의 스님들은 큰스님의 유언에 매여 큰스님을 알리는 일체의 일을 할 수 없었다. 유언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는 4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 결과 월정사에 비석 하나가 세워졌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보문 스님의 행적을 찾아 나섰지만 더 이상 보문 스님의 실체를 알려 주는 기록들이 없었다. 보문 선사는 글 하나 남기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보문 스님은 자신의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서문에서 밝히면서 힘겹게 찾아낸 스님의 생애를 조명했다. 보문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만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서재탐방 | 허흥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불교는 새 시대 흐름 이끌 사상

집안 구석구석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허흥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70)의 서재. 그곳은 시간을 잡아둔 광대한 공간이었다. 반지하의 서가에서부터 1층의 작업실, 20평 남짓한 다락방 서고까지 책들은 집안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래된 토종 소나무를 커서 생긴 대로 조립한 검경의 서가는 손때로 반들거리고 송진의 향기가 짙었다.

허흥식 교수는 13권의 단독저술과 210여 논문을 발표한 한국사학계의 산증인이다. 그의 저술 절반 이상이 불교사인 만큼 불교가 중심이다. 서재에는 10가지 분야로 나눠 분류된 그의 저술과 관련 서적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었다. 국내 책들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고서들이 눈에 들어 왔다. 어떤 책은 등이 남아 천이나 누런 종이가 덧대어 있었다.

책을 집필하는 작업실에는 주 전공인 불교와 역사책들이 중요도 순으로 나뉘어져 있다. 다락방 형태의 2층은 다양한 인문학의 참고일 정도로 다양한 책들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특히 일본과 영국과 프랑스가 각축을 벌인 동남아시아와 중국 원난성의 민족관계 서적이 많았다. 그는 민족불교학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불교와 남침불교의 교섭을 민족학과 결부시켜 풀이하려는 저술을 집필 중이라고 귀띔했다.

작업실 한편에는 동아시아 문학 주석서들이 눈길을 끌었다. 허 교수는 "고려 중기 문인인 임유정의 <백가의시집>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된 서적"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가늠케 했다. 불교사를 민족학과 문학, 사회학의 측면에서 새롭게 해석해 온 허 교수는 "동아시아의 중세 사회는 불교와 분리하기 어려운 관계"라고 말했다.

성실함이 학문 발달 이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논문을 구상합니다." 그는 "서재에서 읽은 책의 내용을 매도 해두었다가 책을 구상할 때 다시 꺼내서 글을 쓰곤 한다"며 "사유에 잠길 때 그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고려과거제도사연구>(1981), <고려불교사 연구>(1986), <한국중세불교사연구>(1994), <진정 국사와 호산록>(1995), <고려로 옮긴 인도의 등불-지공선현>(1997), <고려의 문화전통과 사회사상>(2004), <한국신령의 고향을 찾아서>(2006), <고려에 남긴 유희암의 불빛-몽산 덕이>(2008), <고려의 동아시아사문학>(2011) 등은 이렇게 탄생했다.

그가 쓴 책들은 하나 같이 두툼하다. 사료부터 새로 찾고 판독한 토대를 사용했다. 안을 펴보면 내지 여백을 많이 두는 최근 경향과는 다른 뽀뽀한 글들이 눈길을 끈다. 비록 요즘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가벼움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의 책들은 읽을수록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한다. 내용의 충실함은 새로운 사료의 활용을 의미한다. 허 교수의 저술은 다른 연구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저술은 <고려불교사연구>와 <고려



북전 불교와 남침 불교의 교섭을 민족학과 결부시킨 저술을 집필중인 허흥식 교수

한국불교사 낚은 이론 새 체계로 바뀌어
몽산덕이 연구·남침불교 전래설 돋보여
13권의 단독 저술과 210여 논문 집필

에 남긴 유희암의 불빛 몽산 덕이)다. 허 교수는 15년간 몽산덕이에 관심을 기울였다. 허 교수는 이 책에서 보조지눌(1158 ~1210)이 <육조단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서문을 썼음에도 조계수선사 11조 만항(1259~1319)이 몽산덕이가 쓴 <육조단경>을 유포한 점을 들어 새로운 주장을 펼쳤었다. 보조지눌의 서문이 담긴 <육조단경>이 몽산덕이의 <육조단경>이었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중국 고승의 인가가 필요했던 만항이 보조의 서문이 담긴 육조단경을 유희암 몽산에게 전달했고, 이에 몽산은 이 판본이 그 어떤 다른 육조단경보다 탁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간행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허 교수는 신라시대 최치원이 쓴 봉암사 지중대사적조탑비(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중 '비파사가 먼저 이르고 마하연이 후에 전래됐다(毗婆娑先至...摩訶衍後來)'는 구절을 통해 남침불교전래설을 주장하기도 했으며 인도 날란다대학이 11세기 이슬람의 침입으로 사라졌다는 학설에도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또 묘향산 보현사 자료를 토대로 <삼국유사>의 단군설화 이외에도 백호가 등장하는 또 다른 건국설화가 있음을 밝히고 고려말 나옹 스님을 중심으로 한 범불교를 주장하기도 했다.

허 교수가 학계에서 기존의 통념을 깨는 새로운 학설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주장이 아닌 그의 묵묵한 사료발굴을 통한 성실한 논리전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허 교수는 앞으로

연구해온 과제들을 보완해 새롭게 엮어내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과제라고 말했다.

불교사와 한국사, 새로운 체계로 무장해야

"이 시대는 정설과 정예를 내세운 브리태니카 시대에서 시론을 중심으로 자료의 등록과 활용이 함께 가는 위기피파이 패러다임으로 변화한지 오래입니다."

학계에서는 통신의 발달로 쌍방 소통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허 교수는 10년 전부터 새로운 개념의 연구공간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그가 연구한 자료를 전산화한 일종의 사이버 박물관이다.

그는 "검색체계가 발전하면서 학문연구에도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며 "하마디로 도서관과 박물관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전서와 속사고전서, 한국문집총간과 고전종합목록, 한국역사자료 종합, 중국기본고적고, 그리고 저작권이 지난 저술을 텍스트 화일로 정리하고 있다. 현재 그가 소장한 책은 2만 여권, 하지만 이를 보완하는 디지털 서적은 400만 권 분량에 달한다. 여기에 동영상과 음성, 도록 등을 포함하면 5배 규모로 늘어난다.

허 교수는 "불교야말로 책, 그림, 조각, 동영상, 소리 등이 결합된 새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구현할 소재"라며 "한국불교사의 낚은 이론과 체계를 새로운 시대환경에서 지식을 창출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보 사랑한 또 하나의 국보 이야기

해국 최순우, 한국미의 순례자

이충렬 지음 | 김영사 펴냄 | 1만8천원



우리나라 박물관사와 문화사의 전설이 된 해국 최순우(1916~1984) 선생의 일대기를 통해 이 땅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책이다. 저자는 <간송 전형필>의 작가 이충렬이다. 그의 한국문화예술인물사 시리즈 두 번째 작품으로, 개성박물관 말단 서기에서 시작해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순직하기까지 평생을 바쳐 우리 문화유산과 국보의 아름다움을 찾아 알리며, 박물관을 지켜온 최순우의 삶을 그리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이 한국의 귀한 보물을 관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프랑스 정부에서 큰 호의를 베풀어주셨습니다. 특히 장관의 성의를 잊지 않겠습니다." 1962년 1월 29일, 파리 세르누치박물관. 한국 국보전이 열리고 있었다. 한국 국립박물관 최순우 미술과장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프랑스 문화부장관인 앙드레 말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말로의 관심은 각별했다. 신라 금관, 금귀고리, 기마인물형토기,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등을 차분히 관람한 말로는 마지막 전시실의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제83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부처님이 왕자 시절에 인생의 괴로움에 대해 깊이 사색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가볍게 턱을 킁 채 고요히 앉은 불상 앞에 선 말로는 20분이 넘도록 불상 앞을 떠나지

못했다.

우리 국보 이야기다. 아니 해국 최순우 이야기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알리는 일에 평생을 바친 그의 이야기다. 대한민국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그는 선조의 문화와 이 땅의 유산이 모여 있는 박물관의 중요성을 알고 일생을 바쳐 국립중앙박물관을 지켰고 발전시켰다.

버려진 석탑에서 천년의 역사를 추적하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백자항아리에서 미학을 발견하고, 비가 새는 부석사 무량수전을 바라보며 배흘림기둥의 아름다움에 눈물 흘린 해국 최순우. 그는 어떻게 우리 국보와 보물을 발견하고 탐구했을까. 세계를 감동시키고 매혹시킨 한국의 미는 무엇이었을까. 저자는 그의 정신을 완벽하게 복원해 내겠다는 사명감으로 많은 자료를 찾았다. 그가 발표한 문화재 해설 280편, 미술예세이 205편, 논문 41편, 사료해제 86편 등 모두 600여 편의 글을 읽었다.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던 그의 발자국 소리, 선조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이 왜 자랑스럽고 소중한지를 이야기하던 그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전해준다. 최순우의 삶은 외로웠다. 지금은 문화유산이 아름답고 자랑스럽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는 그렇지 못했다. 일제강점기의 휴유증인 식민사관과 해방 이후를 휩쓴 서구우월주의에 맞서야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의 것을, 우리 선조의 것을 사랑하고 지켜낸 최순우야말로 진정한 '국보'가 아닐까. 우리 국보와 그 국보를 사랑했던 또 다른 '국보' 이야기가 잔잔한 교양을 선물한다.

박재완 기자

의식을 변화시키고 삶을 창조하는
염불의 힘!

오동골 백송(白松)의 안심과 희망의 메시지
정목지음 | 신국판 | 컬러 | 280쪽 | 14,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불교TV 방송강의중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염불 · 관불삼매를 성취한 정목스님의 일상정토 염불수행법
6월20일~9월26일 매주 수 오전 11시30분 불교TV 공개방송

[법문 일경] 제②강 일체정토는 본래일심. ③강 부처님의 부사의한 업용. ④강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 ⑤강 대승불교의 신행체계. ⑥강 수행문의 선택. ⑦강 정토를 보인 뜻. ⑧강 타방정토, 유심정토, 일심정토. ⑨강 염불은 마음을 정토에 두는 도. ⑩강 청명염불. ⑪강 일심정토염불수행의 신행체계. ⑫강 일심정토, 심념으로 아미타. ⑬강 일체가 아미타불 화신. ⑭강 감사 · 보은하는 삶. ⑮강 어두우면 염불하고 밝으면 일한다.

양산 정토원·055-375-5844, 다음카페 아미타피(cafe.daum.net/amtapa)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이 오 칼라 지붕 공사 (구. 현대칼라지붕공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지죽염 125g 40,000원
가 루지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지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지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후대용 알갱이 지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자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